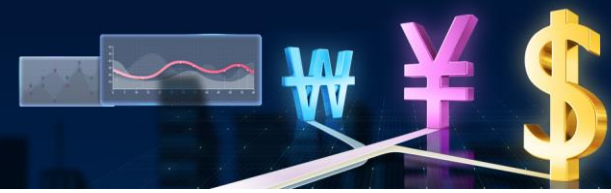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 (2022.12.6)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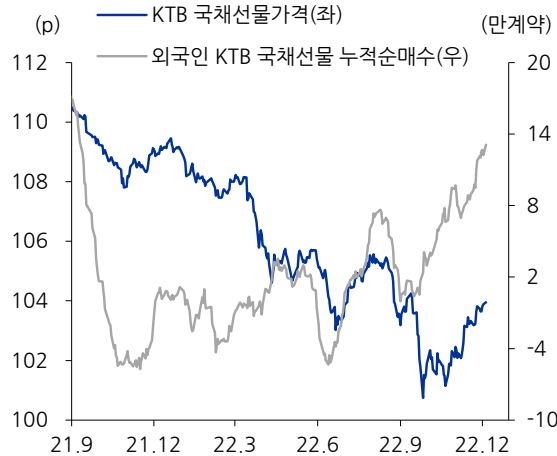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| | 12/5일 | 1D | 1W | YTD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국내 채권 | 한국 국고채 3년물 | 3.609% | -0.7 | -6.0 | 181.1 |
| | 한국 국고채 10년물 | 3.549% | -3.4 | -5.7 | 129.9 |
| | 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| -6.0 | -3.3 | -6.3 | 45.2 |
| | 3년 국채 선물(KTB) | 103.95 | 7.0 | 21.0 | -516 |
| 10년 국채 선물(LKTb) | 112.20 | 35.0 | 45.0 | -1208 | |
| 해외 채권 | 미국채 2년물 | 4.375% | 8.7 | -5.1 | 364.9 |
| | 미국채 10년물 | 3.583% | 9.0 | -10.0 | 207.1 |
| | 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| -79.2 | -79.6 | -74.3 | 78.6 |
| | 독일국채 10년물 | 1.877% | 2.8 | -10.9 | 205.8 |
| | 호주국채 10년물 | 3.364% | -2.6 | -15.1 | 169.2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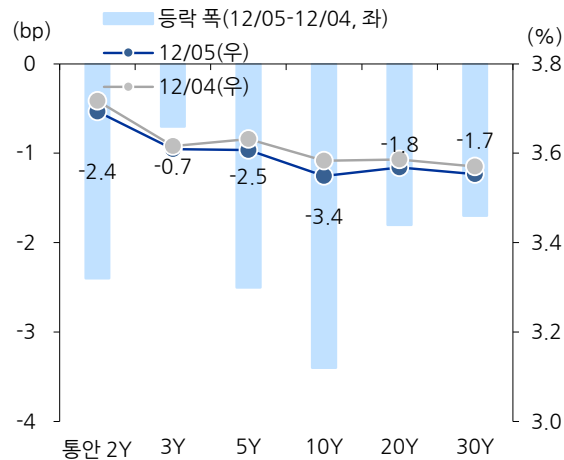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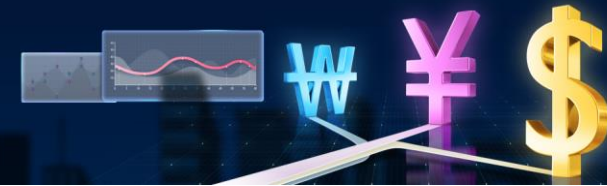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볼 플래트닝 마감. 특별한 대내 재료 없이 변동성 축소된 모습.
- 미국 고용 발표 후 미국채 플래트닝 영향. FOMC 경계심과 최근 가파른 금리 하락기에 따른 레벨 부담 등으로 변동성 제한됐음.
- 9월 중순 이후 매일 상승하던 국내 CP 금리는 3거래일 연속 동일하게 유지됐고, 한전채도 4%대 발행되면서 크레딧 시장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금리 인상 우려 재반영과 최근 금리 급락 되돌림.
- ISM 비제조업 및 공장재 수주 호조와 WSJ의 매파적 기사의 영향. WSJ는 최종 정책금리 5% 이상과 내년 2월 연속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보도. 중국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도 영향.
- 금일 12시 30분 호주 RBA 기준금리 결정 예정. 지난 달에 이어 25bp 인상하며 속도조절 유지 전망.

자료 출처: 연함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용이 아닌 것입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| | 12/5일 | 1D | 1W | YTD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환율 | | | | |
| 원/달러 | 1,292.60 | -0.6% | -3.6% | 8.7% |
| 달러지수 | 105.36 | 0.8% | -1.3% | 10.2% |
| 달러/유로 | 1.049 | -0.5% | 1.4% | -7.8% |
| 위안/달러(역외) | 6.97 | -0.6% | -3.8% | 9.6% |
| 엔/달러 | 136.81 | 1.8% | -1.5% | 18.9% |
| 달러/파운드 | 1.218 | -0.8% | 1.9% | -9.9% |
| 해알/달러 | 5.28 | 1.2% | -1.5% | -5.2% |
| 상품 | | | | |
| WTI 근월물(\$) | 77.36 | -3.3% | 0.2% | 2.9% |
| 금 현물(\$) | 1,766.73 | -1.7% | 1.5% | -3.4% |
| 구리 3개월물(\$) | 8,450.00 | - | 6.2% | -13.4% |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홍콩증시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-7.30원 하락한 1,292.60원에 마감.
- 지난 주말 미국 달러 약세를 반영해 원달러도 하락 출발. 장중에는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낙폭을 추가 확대.
- 역외 위안달러는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7위안을 하회. 원달러도 한 때 1,289원선까지 하락함. 항셱지수는 +4.5% 급등했으나 코스피는 -0.6% 하락.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-2,900억원 가량 순매도.

전망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+0.8% 상승한 105.36 기록. 달러는 지난 주말 견조한 고용에도 약세를 보였으나 이날 미국 경제지표 호조, 최종금리 상향 우려에 강세 반전.
- 11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56.5로 시장 예상치 53.7을 크게 상회. 제조업 수주도 +1.0%(M) 증가해 시장 예상(+0.7%)를 상회. 견조한 경제지표 속 최종금리 상향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채 금리도 급등.
- 반면 유로존 경제지표는 부진. 최근 에너지 소비 감소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소매판매는 10월 -1.8% 급감하며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. 연료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-2.1% 급감. 유로화 가치는 -0.5% 하락.